



창의자본 조성 및 지식재산관리회사 추진(안)

- 자료제공 :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-

1. 창의자본 도입배경 및 필요성

- '90년대 이후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각 국은 지식재산 중심의 전략을 수립,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
 - 정보·지식에 근거한 무형자산이 노동·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등장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
 - 이에 선진 주요국 및 기업은 기존사업의 수익을 무형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탐색·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
- 국내 역시 금융위기 극복 및 선진국 도약을 위해 기존의 노동·자본사회에서 지식기반 창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
 - 제조업 수출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노동·자본 투입의 약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
 - 지식기반 경제로의 대전환을 맞아 창의성과 원천기술자산을 활용한 국내산업 전분야의 생산성 향상 및 지식재산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실행전략이 필요

2. 국내 지식재산환경의 문제점

- 연구개발투자 및 산출되는 지재권의 양적 규모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 현황이 미흡
 - 연구개발의 질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수준의 기업육성, 핵심·원천·표준특허 확보형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
- 지식재산의 경제·산업적 활용이 부족, 연구자의 발명보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진취적인 연구활동 지원 노력이 미약
 - 연구결과에 따른 기업의 사업수익이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창의성이 발현되는 풍토가 미약
 - 최근 선진기업들은 '창의자본' *을 조성하여 지식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'지식재산관리회사' *를 운영 중
 - 반면 국내에는 지식자산을 매입하여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의 활동에 관한 투자자본이 전무

KOREA ELECTRIC ASSOCIATION

- 국내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, 민간시장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취약
 -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, 정부의 사업화 지원 예산도 부족
 - 민간분야 역시 기술의 미래성장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투자하는 시장기반의 성공 사례, 전문역량 확보수준이 미흡

3. 기본방향

3.1 신산업창출을 위한 우수지식재산의 확보·관리

- 부가가치 창출규모 및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·원천·표준기술 및 지식재산확보에 투자함으로써 지식재산산업의 기초 동력을 확보
 -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전략특허의 확보를 위해 IP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이에 근거한 기술자산의 권리화 과정에 투자

3.2 지식재산의 경제·산업적 활용을 통한 산업 육성

-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안정적 수익실현을 통해 지식재산산업의 기반을 마련
 - 시장에서 작동가능한 국내현실에 맞는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이의 성공사례 축적을 통해 시장의 전문성 배양, 역량 있는 운영주체 발굴 등에 투자

3.3 연구성과의 정당한 보상을 통한 '창의사회' 실현

-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한 가치산정 및 거래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연구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창의사회를 구현
 -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산정체계 및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 외에도 연구자 및 시장환경의 인식변화가 필요

4. 추진전략

4.1 [1단계, '09~'10년]

- 창의자본(Invention Capital) 활용 인프라 구축
- 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사업모델 검증('10.1~12)
 -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홍보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

4.2 [2단계, '11년 이후]

- 창의자본(Invention Capital) 조성
- 민간의 전문성 확보, 비즈니스 성공사례 도출, 민간의 투자참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민관공동출자 형태 '지식재산관리회사' 설립 추진('11.1~12)
- '지식재산관리회사'를 중심으로 5년간 5,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조성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('11.1~'15.12) KEA